

광주 5년간 수능 성적 전국 1위

1~4등급 평균 비율 51.5%...232개 시·군·구 중에선 장성 최고

교육평가원 자료 공개...전남도 매년 상승세

지난 5년간 대입수능능력시험에서 광주지역 고교의 성적이 전국 1위에 오르는 위력을 발휘했다. 전남지역도 매년 1~4등급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개 시·군·구 중에선 장성군이 전국 최고의 성적을 냈다. <관련기사 3·7면>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원장 김성열)은 15일 일간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성적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5년간 수능성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1993년(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후 수능시험을 본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성적자료를 분석,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수능 성적 자료 공개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에게 요구해 이뤄졌다.

평가원이 16개 시·도의 지난 5년간 수능등급을 1~4, 5~6, 7~9등급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비율분포를 분석한 결과, 광주의 1~4등급 평균 비율은 5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1~4등급 평균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반면 7~9등급 비율은 충남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부산이 가장 낮았다. 서울의 경우 1~4등급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2009학년도만 놓고 봤을 때 1~4등급 비율은 광주가 전국 최고였다. 언어영역의 경우 제주 49.1%, 광주 47.7%, 전북 44.6% 등의 순이었다고 수리 영역은 광주 54.2%, 제주 47.2%, 경기 45.6% 등의 순이었다. 외국어영역은 광주 48.8%, 제주 47.0%, 강원 44.6% 등의 순으로 1~4등급 비율이 높았다.

■ 시도별 1~4등급 비율 (단위:%)

시도	2009학년도			
	언어	수리	수리나	외국어
서울	40.6	43.3	40.8	42.7
부산	43.8	43.0	49.9	44.3
대구	42.5	39.1	45.2	43.6
인천	36.5	34.2	34.4	34.3
광주	47.7	54.2	54.0	48.8
대전	43.1	31.1	37.2	44.2
울산	36.3	42.5	42.2	36.4
경기	40.5	45.6	37.9	40.1
강원	43.5	40.6	42.2	44.6
충북	42.7	28.4	39.6	43.0
충남	37.4	36.6	35.9	36.4
전남	44.6	28.4	46.7	42.0
전남	39.0	40.2	41.2	37.1
경북	38.6	35.2	39.4	37.7
경남	37.8	35.8	40.3	36.0
제주	49.1	47.2	54.0	47.0

전남지역도 지난 5년간 1~4등급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학년도 1~4등급 비율의 경우 5년전에 비해 평균 3% 포인트가 증가했다.

232개 시·군·구 가운데 상위 20곳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과 광역시의 구와 시 지역이 85.5%, 군 지역이 14.5%를 각각 차지해 대도시 학생들이 시골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하지만, 장성군은 군 지역임에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지역별, 학교별 수능성적(표준점수 평균)에서는 시도 간은 영역별로 6~14점, 시군구는 33~56점, 학교는 57~73점 등 세분화될수록 점수 차이가 컸다.
특히 평준화지역 내에서 학교 간 점수차도 26~42점에 달해 학교 간 '서열'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이 입증됐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사립학교의 수능성적이 국공립보다 조금(언어 1.1~2점, 외국어 1.7~2.9점) 높았고 언어·외국어 영역에서는 여학교, 수리는 남학교가 수능성적과 1~4등급 비율이 대체로 앞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민국 첫 우주발사체 우뚝 섰다

나로우주센터 KSLV-1 발사대 인증시험



우리 나라가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5일 오후 5시에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 위성발사체(KSLV-1)의 발사대 연계 인증시험을 시작했다. 이날 인증 시험이 문제없이 진행됨으로써 오는 7월 말 예정된 KSLV-1의 성공 발사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사대 인증시험은 실제 쏘아올리는 발사체 대신 지상검증용 기체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과정이 실제 발사 과정과 똑같이 진행됐다.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인증시험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1단 로켓과 국내에서 개발, 제작된 2단 로켓 및 과학기술위성 2호를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대형 차량을 이용해 발사대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겼다. 이후 발사체를 발사대에 거치시키고 7시간가량 전기·기계적 점검, 연료 산화제 충전·주입 배출, 발사 시나리오 점검 등 발사 준비와 발사 전 모든 과정을 점검한 뒤 수직으로 일으켜 세웠다.

항우연 오승협(48) 발사체사업팀장은 "애초 계획했던 시험들이 성공적으로 실시됐으며 발사대를 수직으로 세우는 것도 잘 마무리됐다"며 "6월말까지 매일 시험을 꼼꼼히 진행해 성공 발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상검증용 기체는 6월 말까지 발사대에 세워진 상태에서 각종 인증시험이 계속 진행된다. 항우연은 KSLV-1 발사 예정일을 7월 말(±5일)로 잡고 있으며 발사 1개월 전 발사일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KSLV-1은 길이 33.5m, 직경 2.9m, 중량 140t 규모로 2단(상단) 고체 키모터와 1단 액체 엔진으로 이뤄져 있다. 100kg의 소형위성을 싣고 300×1500km의 타원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졌다. /나로우주센터=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우주 강국을 향하여

오는 7월 말에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싣고 발사될 한국 최초 위성발사체(KSLV-1)의 지상검증용 기체가 15일 오후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세워져 발사인증 시험을 받고 있다.
/나로우주센터=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1년새 1만4천명 일자리 잃었다

3월 고용동향 실업률 4.9%...청년실업률은 9.4%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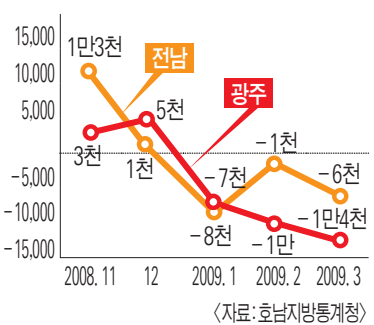
지난달 광주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기간보다 1만4천명이나 줄어 고용지표가 5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



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5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취업자 수는 62만3천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만4천명(-2.2%) 줄었다. 이는 지난 2003년 10월에 1만8천명이 줄어든 이후 최대폭이다.
<관련기사 8면>
취업자 수는 광주가 지난 1월 -7천명, 2월 -1만명 등 3개월째 급감하고 있다. 반면 실업자 수는 3만2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7천명(26.6%) 급증했다. 이로 인해 광주의 실업률

은 4.9%로 2005년 이후 최고에 달했다.
전국 평균 4.0%를 크게 웃돌면서 인천(5.0%)에 이어 서울과 함께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청년실업률 역시 9.4%로 전국평균 8.6%를 크게 상회했다.
3월 전남 취업자도 전년 동월보다 6천명(-0.7%) 감소한 88만5천명에 그쳤다. 지난 1월 -8천명, 2월 -1천명 등 감소폭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전남의 실업자는 전년보다 2천명(-9.8%) 줄어든 1만9천명, 실업률은

■ 광주·전남 취업자수 증감추이



0.2%포인트 하락한 2.1%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의 실업자 수는 95만 2천명에 달해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예고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산업기반이 열악해 고용시장이 좀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현대중입상조

대한민국 최초의 선진국형 장례시스템 - 프리드

문제의 답은 항상 1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문의처
주요 서비스	장례식장 / 화장장 / TM 화장장		
주요 시설	장례식장 / 화장장		
주요 서비스	장례식장 / 화장장		1600-8204

문의처: (주)현대중입상조, (주)프리드

1600-8204